

# 금남로에 무더위 날리는 워터슬라이드

### 5일 차없는 거리 행사

#### 풀장·영화관·플로깅 등 프로그램 세계양궁대회 성공 기원 촛불 걷기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 어린이를 위한 풀장과 워터슬라이드가 설치된다.

광주시 동구는 오는 5일 금남로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열고 워터슬라이드, 영화관, 플로깅 등 여름철 무더위를 식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행사 당일 오후 3시부터는 금남로에 어린이와 가족단위 방문객들을 위해 풀장과 워터슬라이드를 설치 및 운영한다. 물놀이시설은 우리은행 금남로지점부터 금남로센텀시티 인근까지 설치될 예정이며 길이 5m의 미끄럼틀과 가로 5m, 세로 5m 규모의 풀장 2개가 연결된 구조다.

15m 길이의 시설물이 2개 나란히 놓여 총 30m 길이에 달하며 200여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 운영 시간은 오후 3시부터 8시까지다.

안전에 위해 슬라이드 에어바운스 옆 지하상가 입구에는 보강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며, 화상 방지를 위한 그늘막과 샤워실·탈의실, 의료안전 부스도 마련된다.

풀장에서는 조선이공대 라이프사업단 주관으로 수중 체력 프로그램 '동구樂계'도 함께 진행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물놀이 체험도 마련된다.

오후 4시 30분부터는 금남로·충장로 일대에서 꾀조 줍기 '플로깅' 활동이 진행되며, 수거된 담배꽂이를 활용한 환경 퍼포먼스가 선보여질 예정이다.

이다. 오후 7시에는 '2025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사·도민 촛불 걷기 대회'가 열린다.

걷기 대회는 전일빌딩245 앞에서 시작해 충장로를 지나 5·18민주광장까지 이어지는 코스로, 참가자들에게는 대회 홍보 굿즈가 제공된다.

이후 오후 8시부터는 '한여름밤의 영화관'이 운영돼 도심 속에서 별빛 아래 가족과 함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이색 경험이 제공된다.

행사장에는 아스팔트 도로 위에 인조 잔디를 설치해 만든 힐링 공간과 빈백 휴게존이 마련되며 자전거 교육·정비 등 상설 프로그램도 함께 열린다. 도보·자전거·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동구의 '대자보 도시' 정책에 함께 하는 주민에게는 인증샷을 통해 선착순 300명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지급된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 '차 없는 거리' 행사장에 오는 5일 총 길이 30m 규모, 200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풀장과 워터슬라이드가 설치돼 어린이와 가족단위 체험객들을 맞는다. <광주시 동구 제공>

동구는 매일 첫째 주 토요일마다 금남로 일대를 보행자 중심 공간으로 운영하는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운영해 왔다.

동구는 지난 3월부터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시작했으며, 당초 지하상가 상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상가 상인들의 정기 휴무일인 매일 첫째 주 일요일에 맞춰 행사를 열었다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토요일로 날짜를 옮겼다.

임택 동구청장은 "무더운 여름철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시원한 워터슬라이드로 특별한 휴식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물론,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는 뜻깊은 행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



1일 광주여자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광산살이 3년, 어떠셨나요?'라는 주제로 열린 토크콘서트.

## 광산살이 3년, 어떠셨나요?

### 광산구, 민선 8기 3주년

#### 시민 200여 명과 토크콘서트

광주시 광산구는 1일 광주여자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 분야별 전문가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한 광산구 주요 정책, 변화를 공유하고, 앞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광산구 미래상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는 현장 참석자 외 시민들의 목소리도 반영하기 위해 모바일 오픈채팅방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에서는 3년간 772건의 시민 목소리를 받아 구정에 반영한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을 비롯해 '1313 이웃살림' 등이 대표 정책으로 제시됐다. '다같이 민생프로젝트', '천원 더 가치'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도 소개됐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 민·군공항 통합 이전, 광주시교육청 이전 등 새로운 광산의 미래와 직결된 현안의 진행 상황, 광산구의 대응 계획 등도 시민들과 공유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시민과 함께 민선 3기에 대한 소회를 나누고, 지역 현안, 더 나은 미래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광산구는 이날 현장과 열린 대화방에서 수렴한 시민의 의견과 제안을 향후 '2040 광산구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 청장은 "지난 3년 광산구 행정의 핵심 키워드는 '시민'으로, 시민과 함께 만든 광산의 변화들은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원동력이 됐다"며 "시민이 주인이라는 핵심 철학으로, 앞으로도 경청하고 소통하며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길을 밝히며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서구를 바꾸는 어린이들... 유공단체 선정 표창

### 디자인단·합창단 2팀 선정

광주시 서구가 마을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어린이 단체를 규정발전 유공단체로 선정해 표창했다.

서구는 1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열린 7월 정례표창 수여식에서 '운천어린이공원 디자인단'과 '풍암동 어린이동요합창단'을 각각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단체로 선정하고 구정장 표창을 수여했다.

운천어린이공원 디자인단은 노후한 공원과 놀이터를 아이들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로 새롭게 탈바꿈시켰다.

어린이들은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시설이 노후되고 환경이 낙후됐던 운천어린이공원에 주목했다. 마을 디자이너 김정화 씨를 단장으로 운천초등학교 4학년 학생 전체가 디자인단으로 참여해 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과 함께 토론, 설문조사, 워크숍 등 설계 전 과정을 주도했다.

그 결과 공원 내 놀이터에는 지난 5월 지역에서 가장 큰 높이 9.8m 미끄럼틀과 길이 27m 집라인이 설치됐다. 이 놀이터에는 달리기·점프·매달리기 등 다양한 신체 활동이 가능한 놀이공간도 마련됐다.

디자인단 어린이들은 "4학년 때 상상으로 그렸던 놀이터가 2년만에 진짜 눈앞에 생겼다"며 "우리가 함께 만든 놀이터와 공원이 마을 주민 모두의 힐링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풍암동 어린이동요합창단은 2024년 창단했으며, 초등학교 10명으로 시작해 현재 30명으로 성장했다. 매주 토요일 정기연습을 하며 실력을 갈고 닦은 합창단은 최근 '호국보훈의달' 기념식, 정책간담회, 마을 합동공연 등에서 무대를 꾸미며 주민들과 소통해왔다. /서민경 기자 minky@

## 광주 북구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최우수 지자체

### 호남권 유일... 복지부 장관상

광주시 북구는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성과평가에서 호남권 유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을 지역의 돌봄 사업에 활용해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한 지자체를 선정 및 표

창해 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서비스 제공 수준,서비스 연계 실적,전국 확산 가능성 등이다.

북구는 지난해 '당신이 건강한 돌봄 북구'를 주제로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1만 3890명에게 집, 뜰, 부항, 한약 처방 등 한방진료와 인지검사, 정신건강 상담 등 다양한 돌

봄 서비스를 제공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1인 가구 대상 찾아가는 건강 교실, 영구임대주택과 농동통합지역을 아우르는 맞춤형 거점 이동 진료소 운영 등 취약계층이 어디에서든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점도 호

평받았다. 북구는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북구 한의사회, LH광주전남지역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지역 내 다양한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 광주 남구 호남 의병 창작극 '불꽃' 공연 무대

### 8일 봉선동 문화예술회관

광주시 남구가 오는 8일 봉선동 문화예술회관에서 호남 의병의 항일 활약을 재조명한 창작 연극 '불꽃'을 선보인다.

이번 작품은 지난해 상연된 '1592년 임진 고경명과 호남의병'에 이은 두 번째 호남 의병 창작극으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문학적 상상력을 결합해 극적 몰입도를 높인 점이 특징이다.

연극 불꽃은 고경명 의병부대의 금산성 전투에 이어 진주성 전투까지 공간적 배경을 확장했으며, 극의 흐름을 이끄는 가상 인물의 비중과 역할도 전작보다 강화됐다. 연출은 이영민, 대본은 양수근 작가가 맡았다.

공연은 오후 3시부터 2시간여 동안 진행되며, 극단 까치놀이와 극단 말레, 한국연극배우협회 광주지회 소속 배우들이 출연해 의병들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무대 위에서 생생히 그려낼 예정이다.



관람은 남구 주민 누구나 가능하며, 객석은 300명 규모다. 관람 문의는 남구청 민주평화인권과로 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호남 의병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역사 인식을 높이고, 항일 의병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창작극"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의병들의 이야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

한 사람의 보험비지  
전 국민의 경제부담

##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익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6M7

알바 댄는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